

Contents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우편·특송 업체 Royal Mail, 영국 물류업계 매출액 1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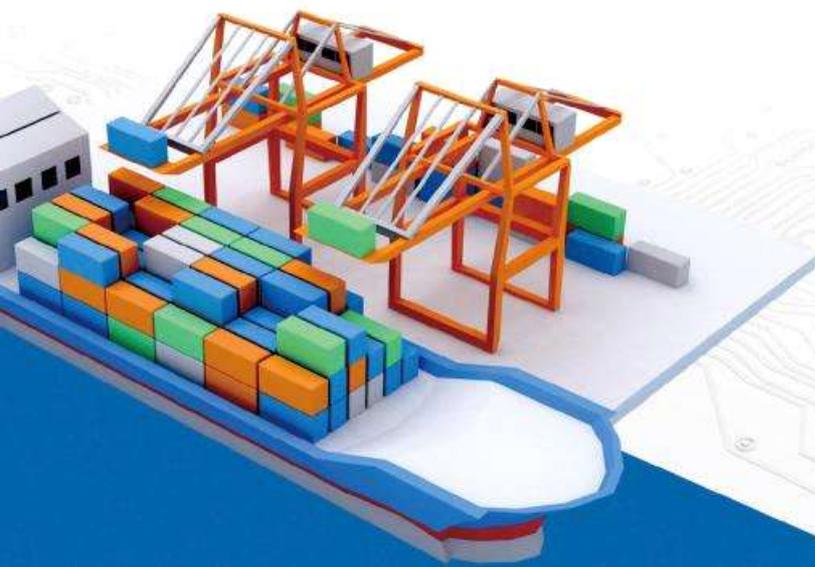
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UPS, Waymo와 화물 운송용 자율주행 미니밴 런칭
2. DHL, 공급망 리스크 관리 사업 확장
3. 냉장냉동 창고 수급 불균형 및 마중 무역전쟁, 보관 서비스 비용 증대 유발
4. 전자상거래 산업 전략 수립을 좌우할 5가지 요인

명사 스피치

“의약품 콜드체인 물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, 2017년 의약품 콜드체인 물류 시장 규모는 약 134억 달러이나, 연 8~9%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, 규모나 가치 면에서 핵심시장으로서, 우리 공항, 항공사, 물류기업들이 표적으로 해야 할 대표적인 고성장, 고부가가치 시장이다.”

이현수 (사)한국물류산업정책연구원장 한국항공대학교 교수
(2020. 2. 5. /코리아 슈핑 가제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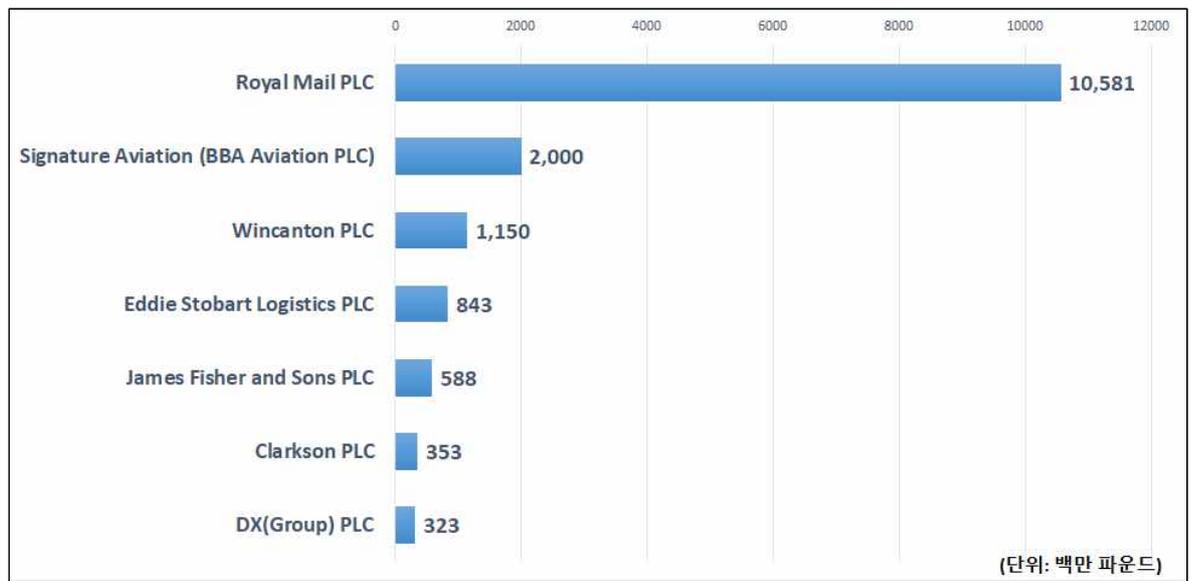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우편·특송 업체 Royal Mail, 영국 물류업계 매출액 1위 기록

- Royal Mail PLC가 2019 회계연도 기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물류업체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
- 2011년 우편 서비스 부문 민영화 진행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영국 내 물류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입증함
 - 연간 105억 8,100백만 파운드(한화 약 16조 3천억 원)의 매출액을 기록, 2위인 Signature Aviation(BBA Aviation PLC)의 20억 파운드(한화 약 3조 9백억 원) 대비 5배 이상 앞섬
 - 한편 해운물류 분야 업체인 Clarkson PLC는 3억 5,300만 파운드(한화 약 5,459억 원)의 매출액을 기록함

영국 물류기업의 2019 회계연도 매출액



자료: Revenue of leading industrial companies headquartered in the United Kingdom(UK) in 2019, KMI 재작성

참고자료 : www.statista.com, 2020.2.5.(검색일 2020.2.3.)

김광모 연구원

051-797-4616, momo09010@kmi.re.kr



UPS, Waymo와 화물 운송용 자율주행 미니밴 런칭

- UPS는 자율주행차량 회사인 Waymo와 파트너십을 체결, 자율주행 기반의 미니밴을 런칭함
 - 이를 통해 물류 거점에서의 택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보관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인건비를 절감해 운송비용을 최대 30%까지 절감할 것으로 전망함

UPS와 Waymo가 함께 런칭한 자율주행 기반 미니밴



자료 : <https://www.supplychaindive.com/news/ups-waymo-self-driving-parcel-pickup/571390/> (2020.2.5. 검색)

- 해당 미니밴은 레벨 4¹⁾ 자율주행차량으로 운전자가 상시 탑승해야함
 - 이는 특정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며, 운전자가 필요할 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됨
 - 레벨 4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를 허용한 미국의 애리조나 주를 중심으로 테스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
-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안전 규정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운전자가 차량에 남아있어야 하지만, 자율주행기술 개발회사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는 운전자가 필요 없어지는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supplychaindive.com/>, 2020. 2. 5.

김효재 연구원

051-797-4686, hj_kim@kmi.re.kr

1) 고도의 자동화 단계



DHL, 공급망 리스크 관리 사업 확장

- DHL은 자사의 공급망 리스크 솔루션 Resilience360의 확장을 위해 Riskpulse를 Columbia Capital, Greenspring Associates와 함께 공동 인수함
 - DHL은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에 Resilience360을 구축하여 공급망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
 - Riskpulse는 운송업체, 유통업체 등의 고객이 정사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SaaS 솔루션을 제공함
- DHL, Columbia Capital, Greenspring Associates 등은 Resilience360과 Riskpulse를 결합하여 선도적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임
 - Columbia Capital의 관리 파트너인 John Siegel은 리스크 분석은 공급망 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이며, Resilience360과 Riskpulse의 강력한 리스크 분석 결과는 공급망 최적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언급함
 - 또한, Riskpulse의 CEO인 Simon Woods는 혁신적인 공급망 예측 분석이 참여자의 투자자본수익률 (ROI·Return On Investment)을 개선시킬 수 있고, 향후 Columbia, DHL, Greenspring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 밝힘
- DHL은 분석 플랫폼과 DHL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조합은 글로벌 공급망의 디지털화 및 재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
 - DHL의 최고 상업 책임자인 Katja Busch는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, 노련한 관리팀, 분석 플랫폼 및 DHL의 네트워크의 조합은 업계에서 독보적이며 글로벌 공급망의 디지털화 및 재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, 두 분석 플랫폼은 Columbia Capital의 자회사인 Rising Tide Digital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 밝힘
 - Rising Tide Digital의 CEO인 David Shillingford는 Riskpulse와 Resilience360 솔루션의 조합 및 확장은 공급망 의사 결정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통합 구성 요소로서 가장 선진적인 고객의 리스크 분석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미래의 자율적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resilience360.dhl.com/> 2019.2.3.

안승현 전문연구원

051-797-4693, shan@kmi.re.kr



냉장냉동 창고 수급 불균형 및 마중 무역전쟁, 보관 서비스 비용 증대 유발

- SpendEdge은 글로벌 보관서비스(global warehousing service) 시장이 2024년까지 1,6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함
 - 해당 규모는 2019~2024년 연평균 성장률(CAGR) 6%로 타 산업 성장률 대비 높은 수준임
- 글로벌 보관서비스 시장 성장의 주요 원인은 제약 및 식품 산업 성장에 따른 냉장냉동 창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이며, 이는 보관서비스 비용 증가를 유발함
 - 최근 식료품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단위의 보관 서비스 시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
 - 실제로 2019년 기준 미국 대형창고 리스 현황을 살펴보면 멤피스(Memphis), 인디아나폴리스(Indianapolis), 콜롬버스(Columbus)와 같은 소규모 허브에서의 창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 - 또한 바이오 약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냉장냉동 창고 등 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- 또한 마중 무역 전쟁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창고 건설비용 증가로 보관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
 - 창고 건설의 주요 자재인 강철(steel)과 알루미늄(aluminum)의 수입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, 마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해당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임
 - 이는 창고 건설비용 증대를 야기하며 보관 서비스 비용 증대로 이어짐
-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비스 번들링(bundling of services), 공급 보증(supply assurance)이 가능한 공급업자와의 계약 등이 있음
 - 서비스 번들링은 공급자가 운송-보관-포장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서비스 구매자는 이를 통해 전반적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
 - 소비자는 취급 물품의 계절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공급가능 시설을 구비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이는 다수 공급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켜줌

■ 참고자료 : www.foodlogistics.com, 2020.2.3./ www.foodlogistics.com, 2020.1.24.

조지성 전문연구원

051-797-4916, jisungjo@kmi.re.kr



전자상거래 산업 전략 수립을 좌우할 5가지 요인

-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던 시대에서 벗어나면서 전자상거래 산업에 새로운 전략이 요구됨
 - 단순한 검색과 가격이 구매 결정의 기준이 되던 시대가 지나면서 전자상거래 전 과정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
 -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린 후 제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, 즉 주문 충족의 최적화 전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름
 - 자동화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주문 충족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들은 도태될 위험이 존재함
 - 최적화 작업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크게 5가지가 있음

- 새로운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의 성장, 데이터 수집, 신기술의 적용, 자동화 및 로봇, 비용 상승의 5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함
 - 시장의 성장 :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2022년에는 41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많은 회사들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, 매장에서의 직접 배송 및 반품 처리를 위해 온-오프라인 채널 간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데이터 수집 : 복잡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, 결재업체, 물류업체 등 시장 참여자간의 데이터 교환이 필수적이며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
 - 신기술의 적용 : 창고에 증강현실(AR) 기술을 적용하면 분류, 보관, 오더패킹 등의 작업 프로세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, 향후 창고 내 물류 프로세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 - 자동화 및 로봇 : 아마존은 창고에 로봇 기술을 적용하여 배송 시간 단축, 가용 재고 극대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으로, 자동화 기술의 적용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잠재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비용 상승 : 인건비, 운송비 등의 상승은 기업 이윤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협요소이나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간소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, 시간 지정·익일 배송 등의 부가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

-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트렌드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
 -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 판매액은 2023년까지 6.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, 그만큼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임
 -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트렌드와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supplychaindigital.com/>, 2019.02.01.

김성기 전문연구원

051-797-4688, skkim@kmi.re.kr